

국가유산으로 고도 익산의 매력 알린다

문화유산 야행 ·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국가유산 활용 22만명 유치 내년에도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포함해 국가유산청 공모 5개 선정

익산시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방문객 22만여 명을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시는 고조선부터 마한, 백제로 이어진 한(韓)문화 발상지 익산의 역사적 정통성과 관광 매력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미륵사지와 백제왕궁(국립익산왕궁리유적지) 그 중심에 있다.

시는 올해 △문화유산 야행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 등 6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들은 계절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대한민국 5대 고도(古都) 익산을 알리고 있다.

우선 지난 4월 백제왕궁에서 '익산 문화유산 야행'이 사흘간 펼쳐졌다. 이번 야행은 전년도 전국 우수 야행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하고, 익산의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 성과를 기념하는 연례로 진행됐다. 짜임새 있는 축제장 구성과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 야경으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특히, 백제문화와 역사 해설 부문을 대폭 강화해 다른 축제와의 차별화에 성공했다. 백제왕궁에 들어서는 입구부터 행사장 전방에 백제 역사를 설명하는 전사가 마련돼 섬세한 노력이 돋보였다.

익산은 올해 SRT가 독자 투표와 전



백석희 익산시 경제관광국장(가운데)이 6일 시청에서 국가유산 활용 사업 성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전국 최고 여행지 10곳'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심사에 나선 여행 전문가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중 매년 야행이 열리는 왕궁리 유적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한 달간 미륵사지의 가을을 밝힌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새로운 시도로 내용을 확장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 행사는 미륵사지와 미륵산을 모두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통해 지역의 대표성을 아간 문화 관광 행사의 위상을 증명했다.

국가유산을 활용한 최첨단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저 아트쇼가 대표적이다. 목탑지와 미륵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백제의 찬란한 역사를 빛과 소리로 재해석한 이번 미디어아트는 미륵사지의 웅장함과 조화를 이뤘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전년도 방문객을 넘어서는 성과를 낳았다.

이외에도 백제왕궁에서 공주, 부여와

함께 순차 진행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축전'과 익산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백제왕궁 소원등 날리기'도 익산 세계유산의 전국적 지명도를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시는 '익산 마한문화대전'을 다시 개최해 그동안 백제에 집중된 익산의 역사외식을 넘어 고조선과 마한으로 이어진 한(韓)문화의 발상지 '익산'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시는 세계유산 뿐 아니라 습지와 춘포 등에 산재한 근대유산을 활용한 생생국가유산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을 진행해 전국 각지의 가족 단위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 프로그램은 매화차 조기 마감되며 인기를 끌었다.

시의 다양한 노력은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창출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가유산 활용 분야 우수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모에서도 신규로 선정된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을 비롯해 5개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1억9,500만원을 확보했다.

백석희 경제관광국장은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한민족의 발상지, 대한민국 5대 고도 익산의 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익산의 관광 문화를 풍성하게 발전시키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매력이 넘치는 익산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5일에 있었던 국립수산물연구원 갯벌연구센터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갯벌연구센터 청사 이전 지원 '결실'

강임준 군산시장, 준공식서 감사패 받아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5일에 있었던 국립수산물연구원 갯벌연구센터 준공식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군산시가 갯벌연구센터의 청사 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시는 갯벌연구센터 이전을 위한 임시청사 지원, 신축을 위한 부지확보 및 관련 도시계획 변경, 예산 확보 등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시의 지원 덕분에 갯벌연구센터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

고, 갯벌 생태계를 보전하는 작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센터는 시설이 건립되면 한층 더 발전된 연구 시설과 환경 아래서 해양생태계 및 갯벌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갯벌연구센터의 새로운 보급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갯벌과 해양생태계 보전 연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다이로움 정책발행 가맹점 확대

익산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을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개편했다.

익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정책발행 가맹점을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주유소와 농수산물 도매점, 대형병원 등 전년도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사업장 73곳에 대해 다이로움 일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다만 시는 이번에 일반 가맹점에서 제외된 73개소를 정책발행 가맹점으로 전환해 시민들이 정책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익산시는 정책발행 가맹점 27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 충전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지만 농민공익수당이나 근로 청년수당 등 정책 수당을 사용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국립군산대, 내년도 찾아가는 대학원 입시 설명회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원장 권봉오)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2025학년도 찾아가는 대학원 입시 설명회 대학원장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대학원장이 간담회는 6개 단과대학 및 1개 ICC대학부를 대상으로 4차례 걸쳐 진행 예정이며, 지난달 16일에 진행된 1차 설명회는 해양(해양이노텍성화대학)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학년도 전기 대학원(일반) 신입 경영행정, 교육) 모집 일정 전 형 방법 안내, 학·석사연계과정, 대학원 학사 및 장학 제도,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인 'K-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대학원생 논문게제 장려금 등에 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원 운영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이재춘기자

'역사·자연·치유'... 관광도시 익산의 매력속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으로 500만 관광도시 바짝

익산시가 지역 특색을 담은 여행 상품 개발을 통해 500만 관광도시로 바짝 다가간다.

익산시는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은 서부내륙권 지자체의 뛰어난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게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비단기암온길 레저코스 △성지해운길 3

개 사업으로 분류된다.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는 중앙동과 인화동을 중심으로 남아있는 근대 유산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공유하는 관광상품이다.

시는 일본인이 운영하던 대교농장 사택 자리에 여행객을 위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이야기가 있는 역할 게임 '솔리걸사택'을 진행하고, 문웅기 열사를 기리는 뮤지컬 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해 관광객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시는 '비단기암온길 레저코스'의 일환으로 자연거울을 활용한 관광상품도 마련했다. 민경강·금강을 따라 조성된 자연거울을 중심으로 웅포 캠핑장과 웅안생태습지공원 등 인근 관광지를 자연거울 여행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오는 16~17일에는 웅포 캠핑장에서 여행은 친환경으로 탄소중립을 주제로 12개 미션을 수행하는 '여친소 12'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시민문화회관서 시민 참여형 '무대-사용자' 개최

소통협력센터 군산(센터장 신연아)이 10일 오후 6시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시민 참여형 공연 '무대-사용자'를 개최한다.

'무대-사용자'는 군산시민문화회관 너른홀에서 선보이는 첫 공연으로,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다양한 쓰임을 전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탐구하는 '군산회관 사용법'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85분간 진행되며, 14명의 시민 참여자들의 고유한 예술을 하나의 공연으로 묶어 선보인다. 특히 가요, 민요 등의 노래와 색소폰, 하프 등의 악기 연주, 움직임, 낭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며, 14명의 시민이 무대의 사용자가 되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색다른 형식의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소통협력센터 군산 누리집의 '군산회관 사용법' 게시글을 통해 참

여할 수 있다.

현재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는 전시 및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군산회관 사용법'이 진행 중이다. 10여 년 만에 새롭게 개관을 앞둔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변화와 앞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 행사는 11월 10일까지 열리며, 관람객들은 전시와 토크, 워크숍, 공연 투어를 통해 군산시민문화회관을 미리 만날 수 있다.

한편 '군산회관 사용법'과 연계하여 총이로 군산시민문화회관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키트 증정 이벤트도 함께 열리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시 관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산회관 사용법' 해시태그(해심어 표시)와 함께 후기를 남긴 후, 소통협력센터 군산 인스타그램 프로필 하단 링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총 30명을 선정하며, 이벤트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